

지역특화발전특구, 민간 아이디어로 지역경제 새 도약 이끈다

- 2026년 지역특화발전특구 컨설팅 지원사업 대상 지방정부(10곳) 선정 -
- 전남 곡성, 경남 거창 등 비수도권 특구 중심으로 민·관 합동 지원단 본격 투입
- 현장 밀착형 사업모델(BM) 설계부터 중기부 주요 재정사업 연계까지 전주기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지역의 자생적 성장 거점 육성을 위해 올해 신규로 도입한 「2026년 지역특화발전특구 컨설팅 지원사업」의 최종 지원대상 지방정부 10곳을 선정했다고 5월 11일(월) 밝혔다.

‘지역특화발전특구(이하 ‘특화특구’)’는 전국 기초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일정 구역을 규제특례 지역으로 지정하는 제도로, 2004년 도입 이후 지역 특화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해 왔다. 중기부는 오랜 기간 운영되며 성장이 둔화된 특화특구에 민간의 창의적 역량을 더해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이번 맞춤형 컨설팅 사업을 기획했다.

지난 3월 말부터 진행된 공모에는 총 17개 지방정부가 참여했으며, 산·학·연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서면 및 대면 평가를 거쳐 최종 10개 특화특구가 선정됐다.

최종 선정된 10곳은 ▲전남 곡성군(섬진강기차마을특구) ▲경남 거창군(송강기벨리산업특구) ▲경남 산청군(한방약초산업특구) ▲전북 순창군(장류산업특구) ▲경북 영천시(한방·마늘산업특구) ▲경북 성주군(참외산업특구) ▲충남 금산군(인삼헬스케어특구) ▲경북 영양군(고추산업특구) ▲경북 영덕군(대게특구) ▲부산 남구(UN평화문화특구)이다.

특히, 국가 균형발전 및 지방시대 국정 철학을 적극 뒷받침한다는 취지에 맞춰,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 등 소멸위기를 겪고 있는 비수도권 특화특구들이 집중적으로 선정됐다.

중기부는 5월 중 선정된 지방정부와 민간 전문가(로컬크리에이터, 상권 기획자 등),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지원단’ 구성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현장 밀착형 상담에 착수할 예정이다.

지원단은 특화특구 현장을 직접 찾아 주요 성장 저해 요인, 제도적 제약 요인을 심층 진단하고,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접목한 신규 사업모델(BM)과 지역특화산업 육성 추진계획 수립을 지원한다.

나아가, 중기부는 도출된 우수 추진계획이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역상권 육성 사업,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 사업 등 중기부 주요 재정사업과 타 부처 공모사업 지원 대상으로 적극 추천할 계획이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이번 지원사업이 인구 감소와 산업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특화특구에 새로운 민간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특화특구가 실질적인 지역 주도 성장의 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전주기에 걸쳐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중소벤처기업부 특구혁신기획단 특구운영과	책임자	과 장	박보근	(044-204-7590)
		담당자	사무관	장좌영	(044-204-7591)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혁신사업처 규제혁신사업팀	책임자	주무관	고은비	(044-204-7597)
		담당자	팀 장	김종화	(055-751-9903)
			부 장	박지연	(055-751-9403)

참고1 2026년 지역특화특구 컨설팅 지원사업 개요

□ (목적) 소규모·소멸위기 지역의 특구에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여, 규제특례-재정지원을 전략적으로 연계하는 지역주도 성장거점 육성

□ (지원대상) 지역특화발전특구 운영 지방정부(총 135개, '26.3월 기준)
※ (타겟팅 전략) 인구감소지역(가점 10점) 및 관심지역(가점 5점) 등 소멸위기·비수도권 지역을 집중 우대하여 국가 균형발전(지방시대) 국정 철학 뒷받침

□ (지원규모) 10개 지방정부(총 1.5억원, 개소당 15백만원 규모)

□ (지원방식) 민·관 합동 지원단*이 ①자료 분석, ②현장 실사, ③특화사업자 (지방정부·민간 등) 인터뷰 등을 통해 지역맞춤형 컨설팅 수행
* 지방정부+민간 전문가(로컬크리에이터, 상권기획자 등)+지방중기청+중진공 등

□ 추진절차

공모·선정 (~4월)	컨설팅 (5~10월)			타 부처 우대권고 (11월)	최종보고 (12월)
지원단(팀) 구성(5월)	중간보고 및 발굴(8월)	사업연계 추천(9월)			
대상 지방정부 선정	맞춤형 컨설팅 제공 착수	고도화 방안 점검, 최적 연계사업 발굴	중기부 및 타부처 연계사업 추천	특구위 의결로 타 부처 공모사업 우대권고	결과보고

□ (지원내용) 특구 체질 개선부터 재정사업 연계까지 전주기 지원

지원 분야	세부 지원 내용
① 심층 진단 (현장 분석)	· 기존 특화사업의 수익성 및 지속가능성을 객관적으로 진단 · 주요 성장저해요인(영커기업 부재, 킬러 콘텐츠 부족 등), 규제 애로 식별
② 전략 수립 (BM 기획)	· 민간 기획자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접목한 신규 비즈니스 모델(BM) 설계 · 민간 주도 상권 고도화 및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세부 로드맵 기획
③ 연계·추천 (재정 매칭)	· 도출된 우수 로드맵을 중기부 지방정부 대상 재정사업* 지원 대상으로 추천 * 지역상권 육성, 시군구연구고산업 육성 등
④ 우대 권고 (범부처 협력)	· 타 부처 공모사업* 우대권고(특구위원회 의결)를 통한 특구 활성화 지원 * 농촌융복합산업지구(농림부), 도시재생뉴딜(국토부), 문화도시 조성(문체부) 등

참고2 2026년 컨설팅 지원대상 특구 현황(10개)

시·도	시·군·구	특구 명칭	지정연도	주요 특화사업
부산	남구	UN평화문화특구	2010년	· (인프라) 유엔평화기념관 건립 및 세계 평화문화공원 연계 특화공간 조성 · (관광·창업) UN평화축제 활성화, 청년 창조발전소 운영을 통한 지역 활력 제고
충남	금산군	인삼헬스케어특구	2005년	· (산업기반) 인삼약초산업진흥원(연구) 및 국제인삼종합유통센터(유통) 운영 · (홍보·판로) 세계인삼축제 및 국제교역전 개최, 인삼시장 현대화를 통한 수출 확대
전북	순창군	장류산업특구	2004년	· (연구·생산) 유용미생물은행 등 연구 인프라 확충, 발효식품 전용 생산시설 건립 · (관광) 고추장 민속마을 명소화, 발효 테마파크 운영 활성화
전남	곡성군	섬진강기차마을특구	2005년	· (인프라) 기차마을 기반시설(장미원 등) 확충, 섬진강 체험장 조성 · (관광) 동화정원 등 휴양·체험관광 연계 사업을 통한 농업 6차 산업 활성화
경북	영덕군	대계특구	2005년	· (관광·생산) 대계 전시관·활어타운 운영, 해양심층수 활용 육상축양단지 조성 · (홍보) 영덕대계축제 개최, 대계 밀키트 개발을 통한 지역 브랜드 가치 제고
경북	영천시	한방·마늘산업특구	2005년	· (인프라) 약초도매시장 운영, 산업 기반 시설(마늘융복합센터 등) 확충 · (홍보) 한약재·마늘 고품질 브랜드 육성, 특화 축제 및 산업 박람회 개최
경북	성주군	참외산업특구	2006년	· (생산) 스마트 참외 시설 보급, 고품질 참외 생산 기반 확충 · (판로) 전자상거래 활성화, 참외 홍보관 운영, 성주참외&생명문화축제 개최
경북	영양군	고추산업특구	2007년	· (가공) 고추산업 기반시설 확충, 장류단지·생산공장 운영을 통한 가공 역량 제고 · (홍보·판로) 영양고추 명품화를 통한 수출 확대, 토종고추 복원, 핫페스티벌 개최
경남	산청군	한방약초산업특구	2005년	· (생산) 약초재배 연구단지 조성, 고품질 한방약초 생산·산업화 기반 구축 · (관광) 동의보감촌 등 한방 휴양관광 자원을 활용한 체험관광 활성화
경남	거창군	승강기밸리산업특구	2019년	· (연구·인프라) 스마트 승강기 핵심부품 연구 개발, 승강기밸리 혁신 인프라 활성화 · (인력·판로) 승강기 산업 전문인력 육성, 입주기업의 국내외 판로 확대 지원